

서울시민의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박희석 연구위원 · hspark@sdi.re.kr

한진아 연구원 · cycle13@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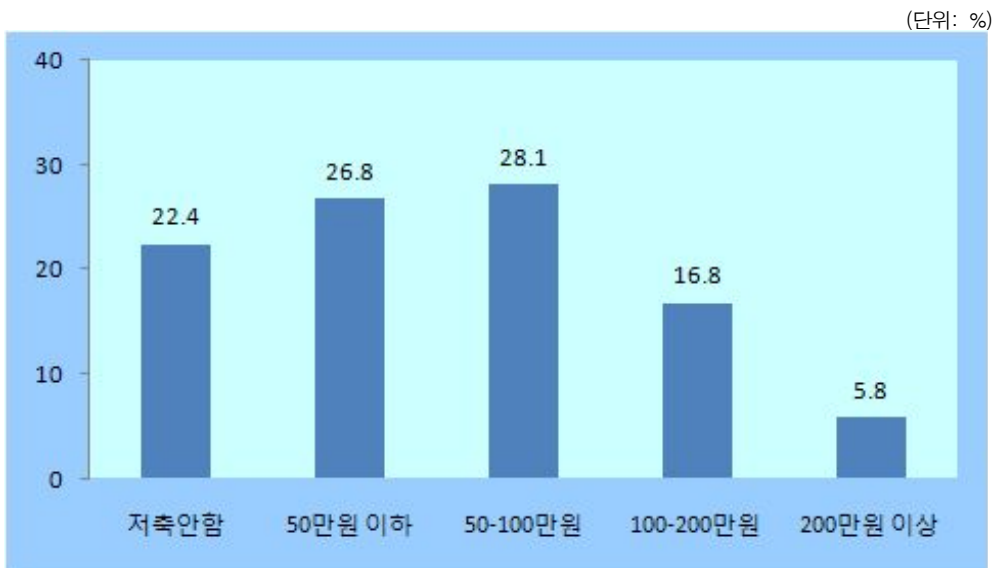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계저축이 늘어나고 있으나, 2009년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최하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였음
-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저축률 하락은 투자재원의 감소를 가져와 향후 서울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 시민들의 저축성향과 저축규모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서울시민의 가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방법은 서울지역 표본 1,009가구를 대상으로 8월 20일~30일까지 열흘간 전화 인터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

- 본 설문조사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시민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신 서울시 설문 담당자와 설문에 응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민의 저축규모 및 저축률

서울시민의 가구당 월평균 저축액은 82.7만원, 저축률은 21.4%로 저축액과 저축률은 고소득, 저연령대, 소가구 일수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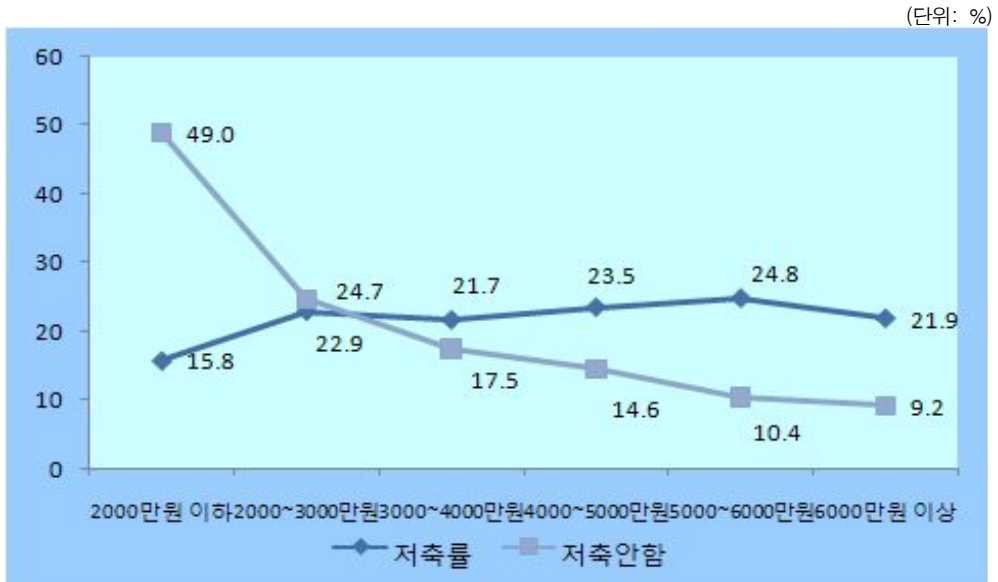
- 서울시민의 가구당 월평균 저축액은 82.7만원이며, 소득대비 저축률은 21.4%로 조사됨. 그러나 전체 응답가구의 22.4%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월평균 저축금액이 50~100만원 이하인 경우 28.1%, 50만원 이하인 경우 26.8%이었으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 22.6%로 나타남



[그림 1] 서울시민 월평균 저축규모

- 전반적으로 소득별 저축규모 및 저축률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득이 많을수록 월평균 저축액도 높았으며 소득대비 저축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9.0%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많은 계층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았으며, 소득대비 저축률은 15.8%로 20% 대를 밑돌면서 다른 소득계층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평균 저축액과 저축률이 증가함
 - 또한, 주거형태가 ‘자가’ 인 가구가 ‘전세’ 인 가구에 비해 평균 저축액 수준은 높으나 소득대비 저축률은 2.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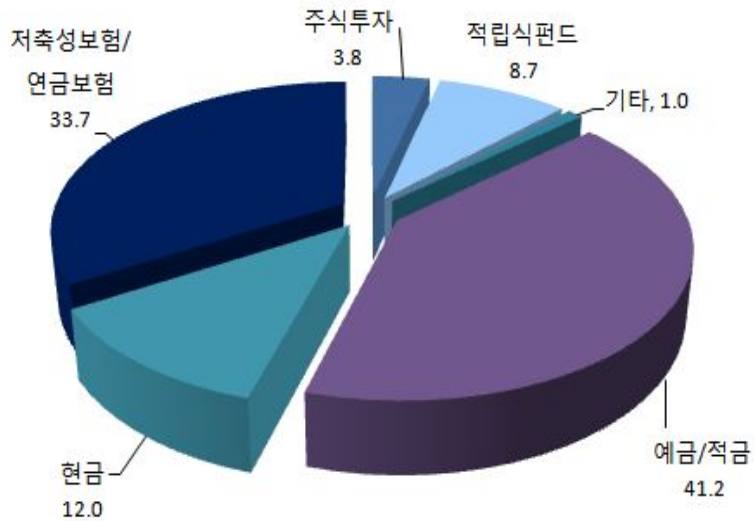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민의 소득별 저축률

서울시민의 저축유형 및 저축목적

1. 저축유형

안정적인 ‘예금/적금(41.2%)’을 가장 선호,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성보험/연금보험(33.7%)’, 저연령대 일수록 ‘적립식펀드’ 및 ‘주식’ 투자 선호

- 저축의 유형으로는 ‘예금/적금’ 이 4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저축성보험/연금보험(33.7%)’ 그리고 ‘현금보유(12.0%)’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서울시민의 저축유형

- 소득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을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국민연금 등 공적 저축 유형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적립식 펀드’ 와 ‘주식투자’ 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중고소득 계층이 더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예금/적금’ 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립식 펀드’ 와 ‘주식투자’ 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40대~50대의 경우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을 선호하는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약 10% 가량 높아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도가 타 연령계층에 비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 서울시민의 소득, 연령별 저축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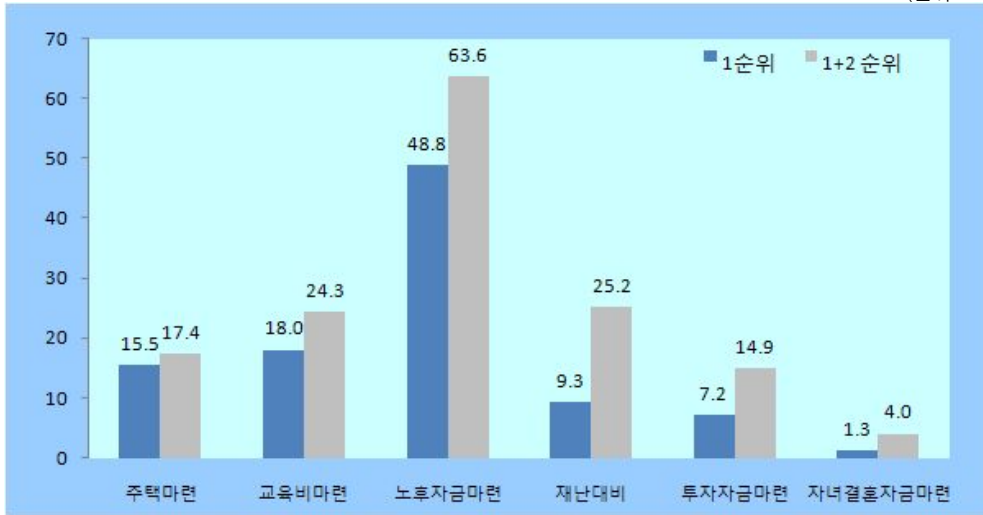
구 분		빈도수 (가구)	예금/ 적금	현금	저축성 보험/연 금보험	적립식 펀드	주식 투자	기타
전 체		1,009	41.2	12.0	33.7	8.7	3.5	1.0
소득	2000만원 이하	198	40.7	9.8	38.8	5.7	3.1	2.0
	2000~3000만원	190	38.0	13.5	39.2	7.5	1.6	0.3
	3000~4000만원	183	44.6	11.6	34.4	6.5	2.2	0.7
	4000~5000만원	158	44.2	9.2	31.0	11.2	3.0	1.4
	5000~6000만원	96	44.6	12.9	26.5	10.2	5.2	0.6
	6000만원 이상	184	36.9	14.2	31.0	11.0	5.9	1.0
연령	30대 이하	165	39.4	14.4	29.5	11.3	5.2	0.2
	40대	278	37.5	12.6	36.9	10.1	2.7	0.0
	50대	323	39.7	9.9	37.2	7.3	3.8	2.1
	60대	243	50.9	12.2	26.9	6.5	2.3	1.2

2) 저축의 목적

‘노후자금 마련(48.8%)’과 ‘교육비 마련(18.0%)’ 등이 저축의 주된 목적으로 조사. 저연령 일수록 ‘주택마련’을, 고연령 일수록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축

- 저축을 하는 이유로는 ‘노후자금 마련’이 48.8%로 가장 주된 목적으로 지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마련’ 18.0%, ‘주택 마련’ 15.5% 순으로 지목됨
- 1·2순위로 조사된 결과도 마찬가지로 ‘노후자금 마련(63.6%)’이 가장 큰 저축 목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노후를 위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단위: %)



[그림 4] 저축의 목적

- 저축을 하는 목적은 소득계층 보다 연령대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 마련’ 을 위해 저축을 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며,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후자금 마련’ 이나 ‘질병 등의 재난을 대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50대의 연령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녀 교육비 마련’ 을 위해 저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 5] 서울시민의 연령별 저축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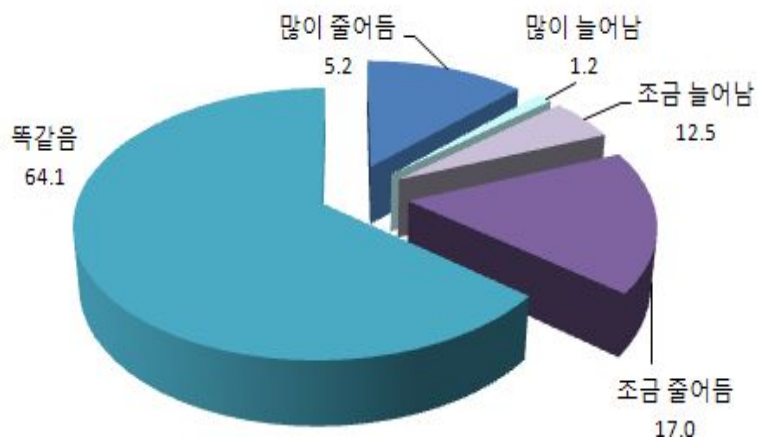
-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세’ 가구들은 ‘주택 마련(35.5%)’ 을 저축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가’ 인 가구들은 ‘노후자금 마련(56.8%)’ 과 ‘주택 마련(6.8%)’ 등의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에도 ‘주택 마련’ 과 ‘자녀 교육비’ 는 저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지만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40대~60대의 저축목적 1순위가 ‘노후자금 마련’ 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확실한 노후 및 경제상황 대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됨

서울시민의 저축규모 변동추이 및 추가 저축성향

1. 작년대비 올해의 저축규모

경기악화로 저축이 감소한 가구는 22.2% 증가, 평균 55.9만원의 저축액 감소, 이는 소득감소와 교육비용 증가 등이 주원인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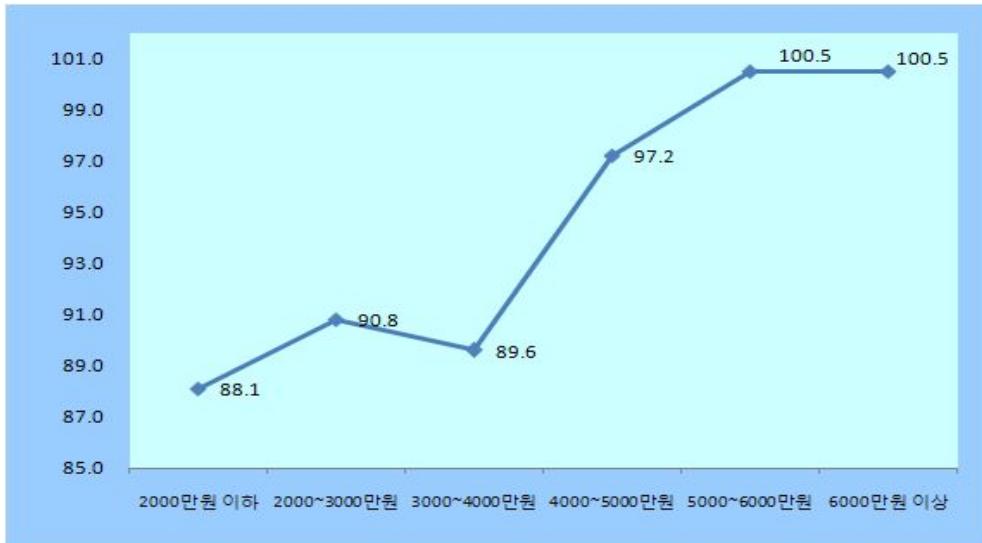
- 작년에 비해 올해 저축규모가 증가한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의 13.7%이고, 반대로 저축규모가 감소한 가구는 22.2%로 저축규모가 감소한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작년대비 올해의 저축규모

○ 저축규모지수¹⁾는 93.8로 기준치 100에 미치지 못해 작년보다 올해 저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보면, 5,000만원 초과계층은 올해 저축이 증가하였으나, 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은 저축이 감소



[그림 7] 소득별 저축규모지수

2. 저축규모 증·감 원인

- 저축규모가 감소한 가구의 경우, 1년 사이 평균 55.9만원의 저축액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저축규모 감소의 이유로는 ‘소득 감소’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의 이유도 21.9%를 차지함
- 지난 해 말부터 본격화된 금융위기는 기업 구조조정 및 임금동결·삭감 등으로 전이되어 가계의 저축규모에 영향을 미침
 - 또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사교육시장의 교육비 증가도 저축규모 및 저축률 감소 원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남

1) 저축규모지수가 100이상이면 저축규모 증가, 100미만이면 저축규모 감소로 해석.



[그림 8] 올해 저축규모 감소이유 (n=224)

- 올해 저축규모 감소 이유를 소득별로 보면, 대체로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규모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감소한 경우 또 다시 저축규모 축소로 이어져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 및 지원 필요
- 한편, 6,0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교육비로 인한 저축규모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나타냄

<표 2> 올해 저축규모 감소 이유

(단위: %)

구분	빈도수 (가구)	소득이 감소해서	교육비 많이 들어서	금리가 낮아져서	집안의 관혼상제	부동산 구입해서	소비가 늘어서
전체	224	56.3	21.9	3.1	1.8	2.7	14.3
소득	2000만원 이하	44	68.2	11.4	6.8	2.3	0.0
	2000~3000만원	45	64.4	13.3	4.4	0.0	2.2
	3000~4000만원	51	54.9	27.5	0.0	2.0	0.0
	4000~5000만원	33	63.6	21.2	0.0	0.0	3.0
	5000~6000만원	18	44.4	27.8	5.6	5.6	11.1
	6000만원 이상	33	30.3	36.4	3.0	3.0	6.1
연령	30대 이하	39	43.6	23.1	2.6	0.0	12.8
	40대	74	54.1	29.7	2.7	1.4	0.0
	50대	72	55.6	22.2	2.8	2.8	1.4
	60대	39	74.4	5.1	5.1	2.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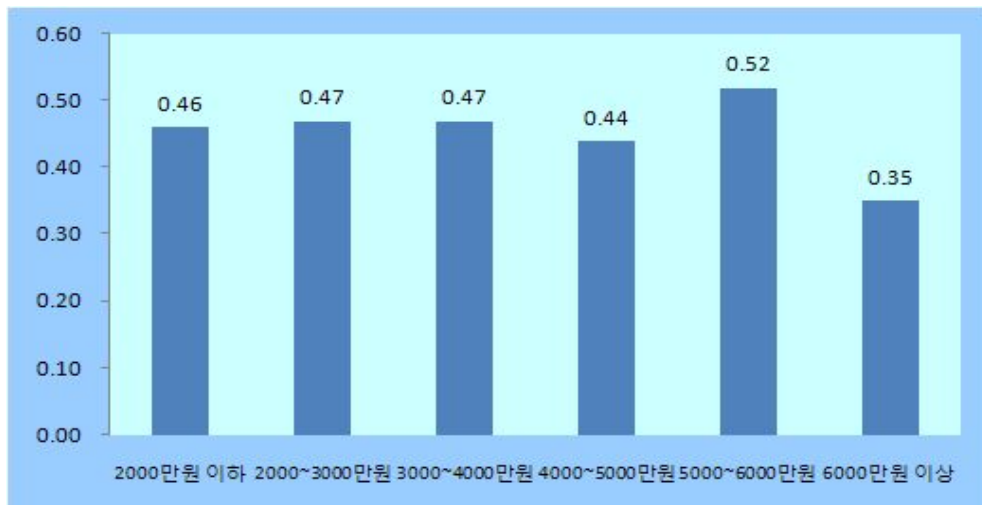
3. 추가 저축규모 및 저축유형

1) 추가 저축액 규모

○ 응답 가구들은 월소득만큼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평균 158.5만원을 추가 저축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한계저축성향²⁾은 0.45로 나타남. 즉, 추가 소득액의 55.4%는 소비를 하고 44.6%는 저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림 9] 추가 저축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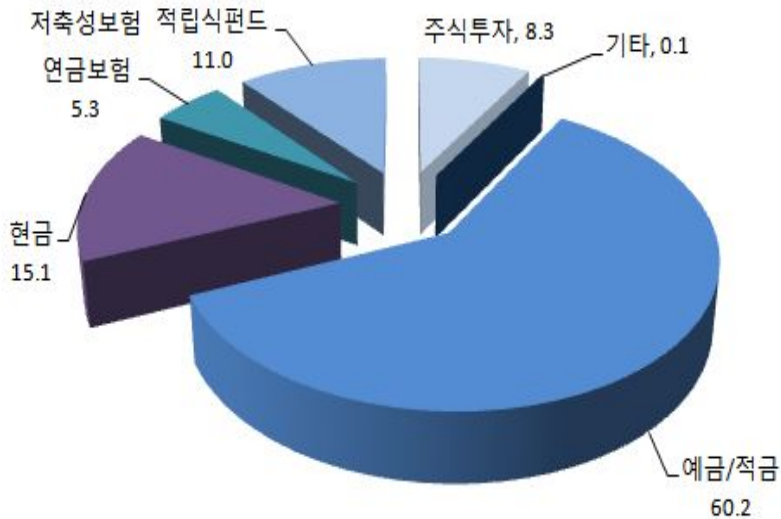
[그림 10] 소득별 한계저축성향

2) 한계저축성향(MPS: Marginal propensity to save): 소득의 증가에 대한 저축 증가의 비율

- 추가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추가 소득액 모두를 소비하고 추가 저축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 또한, 소득별로는 3,000만원 미만인 소득계층에서 추가 저축액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인 21%를 넘음
- 평균 추가 저축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대는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계저축성향은 특별한 추세가 보이지 않음

2) 추가 소득 발생 시 저축유형

- 추가 소득 발생 시 투자할 저축유형으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예금/적금’ (60.2%)으로 꼽았으며 ‘현금’ 은 15.1%, ‘적립식 펀드’ 가 11.0%로 나타남



[그림 11] 추가 저축의 유형

- 전 소득계층에서 ‘예금/적금’ 을 가장 많이 선호하지만, 선호하는 비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감소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금/적금’ 과 ‘현금으로 보유’ 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적립식 펀드’ 와 ‘주식 투자’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추가 저축액 투자처

(단위: %)

구 분		빈도수 (가구)	예금/ 적금	현금으 로 보유	저축성 보험/연 금보험	적립식 펀드	주식 투자	채권
전 체		797	60.2	15.1	5.3	11.0	8.3	0.1
소득	2000만원 이하	135	71.1	17.8	4.4	3.7	3.0	0.0
	2000~3000만원	147	61.2	15.0	5.4	10.9	7.5	0.0
	3000~4000만원	151	67.5	10.6	4.6	9.9	6.6	0.7
	4000~5000만원	130	55.4	13.1	8.5	10.0	13.1	0.0
	5000~6000만원	82	54.9	15.9	3.7	15.9	9.8	0.0
	6000만원 이상	152	49.3	18.4	4.6	17.1	10.5	0.0
연령	30대 이하	142	59.2	10.6	6.3	12.7	11.3	0.0
	40대	224	51.3	15.2	7.1	17.0	8.9	0.4
	50대	255	61.6	15.7	5.5	9.0	8.2	0.0
	60대	176	70.5	17.6	1.7	5.1	5.1	0.0

우리나라 저축률 감소원인에 대한 서울시민 의견조사

우리나라 저축률의 주요 감소원인으로 ‘자녀 교육비 증가(65.5%)’와 ‘낮은 금리(36.6%)’ 그리고 ‘주택구입(33.7%)’ 등의 순으로 조사

- 2009년 OECD가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30개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17개국 가운데 내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최하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20년 동안 우리나라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응답 가구들은 이 흐름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교육비의 증가’ (65.5%)와 ‘금리가 낮아서’ (36.6%)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우리나라 저축률 감소원인에 대한 서울시민 의견조사

- ‘주택 구입’ 과 ‘자녀 교육비 증가’ 로 인해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소득이 많을수록 강했으며 ‘통신비 및 주거비의 증가’ 를 꼽은 비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높음
- 외환위기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빚을 내면서 집을 사는 가구가 많아져 가계 부채가 증가하였고, 사교육의 열풍이 지속되면서 교육비 지출 등의 고정비용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 반영됨
 -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낮아짐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 밖에도 ‘소비의 다양화’ 와 ‘문화여가비의 증가’ 등의 원인들이 10% 이상의 비율을 보여 지난 20년간 소비행태의 변화가 저축률 하락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소모 및 과시성 소비와 같은 불필요한 소비의 증가로 개인들의 저축여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 우리나라 저축률 감소 이유

(단위: %)

구 분	빈도수 (가구)	주택구입 으로 인해	자녀 교육비의 증가	문화여가 비의 증가	소비의 다양화	통신비 및 주거비의 증가	금리가 낮아서	
전 체	1,009	33.7	65.5	10.0	15.7	24.0	36.6	
소득	2000만원 이하	198	27.8	53.5	11.1	17.2	29.3	36.4
	2000~3000만원	190	29.5	66.3	12.6	14.7	24.7	34.2
	3000~4000만원	183	31.7	66.7	5.5	15.8	26.8	41.0
	4000~5000만원	158	33.5	68.4	10.8	13.9	24.7	36.7
	5000~6000만원	96	44.8	65.6	10.4	11.5	21.9	37.5
	6000만원 이상	184	40.8	73.9	9.8	18.5	15.2	34.2
연령	30대 이하	165	37.6	61.8	7.9	17.6	17.0	50.9
	40대	278	40.6	83.1	7.6	7.6	17.3	33.8
	50대	323	27.9	62.8	11.8	15.2	34.1	32.2
	60대	243	30.9	51.4	11.9	24.3	23.0	35.8

<표 4> 계속

(단위: %)

구 분	빈도수 (가구)	부모 생활비 지원	부채의 증가	물가의 상승	소득의 감소	
전 체	1,009	0.3	0.3	2.3	3.0	
소득	2000만원 이하	198	0.0	0.0	5.1	5.1
	2000~3000만원	190	0.0	0.5	3.2	4.2
	3000~4000만원	183	1.1	0.5	1.1	1.6
	4000~5000만원	158	0.0	0.0	1.3	2.5
	5000~6000만원	96	1.0	0.0	0.0	3.1
	6000만원 이상	184	0.0	0.5	1.6	1.1
연령	30대 이하	165	0.0	0.6	1.2	0.6
	40대	278	0.4	0.7	1.1	1.4
	50대	323	0.3	0.0	2.8	4.3
	60대	243	0.4	0.0	3.7	4.5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저축률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최근 OECD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저축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지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저축률이 상승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

- 서울시민 1,009가구 조사결과 작년에 비해 올해의 저축률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가구 수는 22.2%에 이르며, 평균 55.9만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 가계저축률이 낮아진 이유로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및 대출이자 등의 고정비용이 늘어나 저축률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소득증가세가 과거와 달라졌으며, 소비는 커졌으나 소득 증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밖에 인구 고령화 심화도 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저축률 하락은 가계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것은 물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제성장 또한 갈수록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서울은 잠재성장률 재고와 중·장기적 저축률 증가를 위한 노력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킴.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서울시의 제도 확충 및 공공연금 보완의 노력 필요
 - 교육시장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체방안 마련 시급. 무엇보다 소비자 개개인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의식개선이 필요